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3
현상설계경기 / 118
계획작품 / 124
해외잡지동향 / 128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4
신입회원 / 136
게시판 / 138

협회소식 KIRA news

**임원 ·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설계도서 신고문제 등 현안 협의

우리 협회 97년도 제2회 임원 ·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5일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 시 · 도건축사회장이 연석한 가운데 부산 국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설계도서 신고문제」를 비롯해 「소규모건축물 감리문제」 등 협회 당면 현안들이 중점 논의되었다. 특히 이들 현안중 설계도서 신고와 관련해 무자격자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록건축사의 회원 미가입, 설계도서 미신고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건축사회가 4월말까지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회에 제출토록 해 이를 토대로 협회가 건교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문제」는 우선 각 시 · 도건축사회가 자체적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면 협회가 최종 이를 종합해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안(가칭)」을 마련, 차후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대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 광경

이사회 개최

용인시 · 오산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 부산 국제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 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 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회
 - 제1호 의안 : 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지역건축사회(용인시, 오산지역) 신설)
 - 제2호 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7명 증원 : 3급감 1, 6급감 6)
 - 제3호 의안 : 사무기구 개편(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4호 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5호 의안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유보(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부산건축사회

「제3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건축관련 상식 및 교양강좌 실시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가 대민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민건축대학」 제3기 개강식이 지난 4월 15일 부산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

강식은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과 임원,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김성일 부산시 주택국장, 한병우 건축가협회 부산지회장 등 관계인사와 수강생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매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상식 및 교양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시민건축대학」은 부산시민은 물론 건축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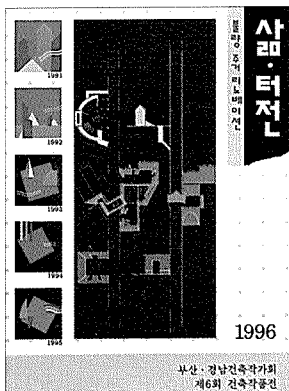
개강식 광경

부산·경남건축작가회 제6회 건축전 작품집 발간

회원작품과 활동소식 등 수록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건축가들로 구성된 부산·경남건축작가회(회장 이광태/경남대 교수)가 여섯 번째 건축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이 작품집은 지난해 12월 부산건축사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던 「제6회 부산·경남건축작가회 건축작품전」출품작들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것으로 작년 전시회와 같이 '삶·터전-불량주거 리노베



이션'이란 주제를 표지에 달았다. 이 작품집은 또한 일반 작품집들과는 달리 지난해 개최했던 각종 워크숍 및 세미나, 건축답사 및 기행 소식 등을 기사로 담아 부산·경남지역건축작가회의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부산·경남건축작가회에는 이광태 교수를 비롯해 김기환(부경대 건축과 교수), 성인수(울산대 교수), 손 옥(토탈건축사무소 대표), 윤수근(구상건축 대표)씨 등 4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ARCASIA 제9차 포럼」 9월22일 개막

'아시아의 미래건축' 주제로
일본 동경에서

「아카시아(ARCASIA) 제9차 포럼」이 올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동경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건축사협회(Asa)가 주최하고 일본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건축(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건축의 내일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펼친다. 포럼 개최장소인 동경국제회의장은 나리타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90분, JR 나리타 특급기차로 53분, 하네라 공항에서 하마마스쵸역까지 동경모노레일로 23분가량이 소요되는 동경 지오다구 마루노우지 3-5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그동안 서구문명의 팽창에 도전받아 온 아시아가 다양한 창작활동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건축가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아시아권 각국 건축사들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최신 건축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참가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581-5711~4)

부산건축사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96~'97 신입회원 대상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는 지난 3월 20일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96~'97 신입회원과 부산건축사회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부산여대 이승명 교수의 '세계화 시대의 가치관'을 주제로한 특강과 협회 연혁 및 회무운영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5월11일 시행

서울대와 건국대 2곳에서

오는 5월 11일에 실시되는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장소가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은 건국대와 서울대 2곳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응시자중 수험번호 00001~06730번까지가 서울대, 06732~12999번까지가 건국대에서 각각 시험을 치루게 된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건축계획 등 3개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으로 치뤄진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펜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